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 지역 체류 중동인들 '불안'

광주·전남 중동 출신 760명 거주 가족 걱정에 하루 수차례씩 전화 전문가 '외교·국제관계 관심 필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전 세계의 긴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 체류 중인 중동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국제 정세는 대한민국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에만 머무는 시야를 넘어 외교와 국제 관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오전 0시55분께 이스라엘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탐지돼 전국 각지에 공습 경

보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후 위협이 제거되자 약 20분만에 경보를 해제했다.

전날 밤에는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다수의 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도 지난 16일 저녁 이란 수도 테헤란에 위치한 국영 IRIB 방송국 본사를 두 차례에 걸쳐 공습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 규모는 이스라엘은 24명이 사망하고 600여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란은 사망자 225명, 부상자는 1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두 나라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중동지역 외국인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

법무부의 지역 등록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광주에는 중동 출신 외국인(이란·시리아·이라크·파키스

탄)이 458명, 전남에는 302명, 총 76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스라엘 국민은 없었다.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센터나 외국인 커뮤니티 등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불안한 중동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특히 비행기로 10시간 이상 떨어진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

현재 이란 정부는 지역에 거주 중인 자국민에게 언론 인터뷰나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지역 중동 거주자들도 말은 아끼는 분위기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컴퓨터 공학과에서 연구 중인 나림 아미르(37)씨는 "이란과 가까운 파키스탄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돼 하루에도 네댓 번씩

전화하고 있다"며 "두 나라 간 무력 충돌로 인해 현지는 불안한 상황이고, 주변의 중동 출신 동료들 역시 혼란스럽고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중동인들, 특히 이란 출신 거주자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거나 아예 외출을 삼가하는 등 불안한 자국 현실을 타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세계적 긴장 국면이 커질수록 외교와 국제 관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K컬처의 정치적 버전처럼 외교 분야에서도 보다 큰 시각과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관계가 곧 대한민국의 평화와 직결되고, 만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그만큼 외교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주민이라고 해서 광주·전남 혹은 한반도만 바라봐선 안 되고, 오히려 더 넓은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외교력을 갖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먼저 그러한 국가와 지도자를 요구하고 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은 명분상으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군사적 위기감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작됐다. 특히 공습 시점이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내 정치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시교육청, '2025년 장애학생 e페스티벌'

e스포츠 등 2개 분야 8개 종목

광주시교육청은 17일 분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광주 19개 학교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지도교사 등 80명과 함께 '2025 광주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보 역량을 키우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대회는 정보경진 분야 4개와 e스포츠 분야 4개 등 2개 분야 8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정보경진 분야는 △아래한글 △동영상제작(특수학급) △소프트웨어(SW)코딩 △스마트 검색 등이며, e스포츠 분야는 △닌텐도 스위치 배구 △FC온라인 △모

두의 마블 △팀파이트택틱스 등이다.

특히 '모두의 마블'과 '팀파이트택틱스' 경기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이 함께 팀으로 참여해 서로를 응원하며 도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또 실감형 콘텐츠, 코딩로봇, AI이미지 제작 체험, AI음악 제작 체험 등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체험 부스도 운영됐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학생은 오는 9월 9~10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리는 '2025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에 광주 대표로 참여한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정보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마련한다"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17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개최한 '2025 광주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FC온라인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전남교육청, 학교폭력 공정한 처리 방안 논의

순천시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17~18일 역량강화 연수 운영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7~18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열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와 주무관 5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이론과 실례를 통합한 전문 교육을 통해 업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학생 중심의 사안처

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연수 내용은 △심의위원회 운영 유의사항 및 간사 역할 안내 △조치결정 통보서 및 불복절차 답변서 작성 실습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실제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모임(분쟁조정) 시 유의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사안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돕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교육청 간부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참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7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회의실에서 분청 간부,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월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회의는 기관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매월 기관을 방문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이어 이정선 교육감과 간부들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1층에 마련된 참배실을 찾아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일제 강점기에 군사용으로

조성된 3개의 화정동굴을 둘러봤다. 화정동굴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앞 산자락에 있는 일제 잔재물로, 추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조성될 역사누리터와 연계해 학생·시민을 위한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시교육감은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 학생들이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뜻과 의지를 깊이 새기고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통일부 차관 추천 받은 김병내 청장... "통일노력 인정"

국민추천제서 남구청장 추천

정부가 추진한 '국민추천제'가 높은 국민적 관심 속에 마감 됐다.

이 중에는 광주·전남 지역 출신 인사들도 잇따라 주요 직위 후보로 추천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바로 김병내(사진) 광주남구청장이 통일부 차관 후보 추천이었다.

한 시민이 김 청장을 추천한 것으로 '남구의 통일에 대한 노력'을 인정한다는 차



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광주광역시 남구에 따르면 김 청장의 통일에 대한 노력은 민선7기부터 시작했다. 당시 민선 7기 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는 곧바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조직 내 남북교류협력팀을 신설했다.

이어 시민 통일강사 양성, 남구 평화통일 시민축제, 이산가족 기록사업, 통일을 레깅 걷기 등 시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해

지역 구청장으로서의 믿기 어려운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과 행동을 보였다. 특히 지난 2022년 10월21일 첫 시행된 '통일열차'는 지역민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끌었다.

통일열차는 평화 인문학 강의, 탈북민기도, DMZ 체험 등을 하며 지역 주민 3650여명이 참여한 전국 유일의 공공형 통일 프로그램이다.

한편 김 청장은 남북 교류 관계를 계속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준 기자

K-교육 선도 '글로벌 전남교육' 본격 추진

정책 실행력 높이기 논의 기관 간 협업 체계 강조돼 인문교육 가치 재조명돼

전라남도교육청이 '글로벌 전남교육'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기관 간 협업 강화와 현장 실행력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도교육청은 1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K-교육, 전남교육에서 출발합니다'를 주제로 6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대중도교육감을 비롯해 분청 국·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늘봄교육, 2030교실, 전남학생교육수당, 교육발전특구, 글로벌교육 등 주요 정책의 실행 방안과 기관 간 역할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교육정책이 지역 중심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교육청-지원청-학교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옥란 전남교육정보연구원장은 직속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독서인문교육,

학생 주도 수업, 이중언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순용보성교육장은 "교육정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운영이 중요하며, 분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장들은 "정책은 현장에서 실현될 때 진정한 교육이 된다"며 교육지원청의 중간 조정자 역할에 공감했다.

김도교육감은 "이번 협의회는 글로벌 전남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실천적 논의의 자리였다"며 "K-교육을 선도하는 전남교육 실천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